

학동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정교육에 따른 가정복지감에 관한 연구

김 계 동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I. 서 론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 가정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때 가족원의 복지가 향상되며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 중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사회화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 형성 등과 관련하여 가정 즉 부모의 주된 역할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정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부모는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교육이 행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소자녀화 현상과 물질적인 풍요는 자기의 자녀만을 귀하게 여기며, 부모 자신의 모범을 통한 교육보다는 돈을 앞세운 교육과 외형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기본적 인성교육이 무시되고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본요인이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정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해져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나, 가정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그 대상이 부모였으며 실제 교육대상자인 자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가 생각하고 행하는 가정교육과 이것을 자녀들이 지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자녀의 관점에서 가정교육의 현황을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모들의 가정교육 태도와 내용을 학동기 자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복지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정교육은 자녀의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교육으로 그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게 되며 부모는 의도적·무의도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 많은 규범서들에 부모의 태도, 교육 내용, 아동의 도리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교육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즉 가정규범교육의 내용과 특징(이길표;1994), 전통가정교육의 현대적 시사(김영철;1995), 새시대 가정교육의 전망(김재은;1997), 전통사회의 가정교육(유점숙;1994),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유안진;1980), 세계화를 위한 ‘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정옥분 외;1996), 유교 아동교육의 현대적 조명(이건인 외;1994)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전통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을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 있게 하였으며, 부모의 모범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며, 부모에 대한 효와 어른에 대한 예절, 인간관계의 예절 및 일상생활에서의 몸가짐 등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적인 가정교육에서도 그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에서의 가정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 수행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의 내용을 척도화 하려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즉 가정교육의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시안(지영숙 외;1994), 가정교육내용에 관한 척도개발(서병숙 외;1996, 왕석순;1997) 등의 연구에서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시도되었다.

한편 가정교육과 가정복지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손홍숙의 연구(1998)에서는 규범서에서 제시된 전통적인 교육내용들이 가정복지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지영숙 등의 연구(1997)에서도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및 수행이 건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가정에서 학동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내용을 분석하고, 자녀들이 지각하는 가정복지감과의 관련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가정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꾀하고자 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내용

-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가정교육태도, 가정교육내용, 가정복지감은 차이가 있는가?
- (2)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에 따라 가정교육 내용은 차이가 있는가?
- (3)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에 따라 가정복지감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동시에 아직 청소년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식되는 중학교 1학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는 전통가정교육에 대한 연구 및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개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조사자가 작성하였다. 조사는 2001년 7월 부산시의 3개구에서 중학교 1학년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설아동 1명을 제외한 218부를 SPSS Window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ANOVA,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의 해석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 표 1 >과 같다. 여학생이 51.6%로 남학생보다 다소 높으며, 형제자매수는 2명인 경우가 76.1%, 관계는 남매인 경우가 48.2로 가장 많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6.7%로 월등히 높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2.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활수준은 중간정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67.1%로 가장 많고, 부의 직업은 자영업·회사원이 74.6%로 가장 많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다소 높다. 학력은 아버지는 대졸, 어머니는 고졸이 가장 많고, 종교는 부모 모두 불교가 가장 많다.

< 표 1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구 분			구 분	
	성별	남 여		104(48.6) 110(51.4)	부의 직업
형제자매수	1명 2명 3명 이상	19(8.7) 166(76.1) 33(15.1)	모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115(55.8) 91(44.2)
형제자매관계	형제 자매 남매	59(28.0) 47(22.3) 105(49.8)	부의 학력	중등이하 고등학교 대졸이상	8(3.9) 85(41.9) 110(54.2)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189(86.7) 29(13.3)	모의 학력	중등이하 고등학교 대졸이상	12(5.9) 117(57.9) 73(36.2)

주택유형	아파트	157(72.4)	부의 종교	무교	62(30.3)
	연립주택	31(14.3)		불교	101(49.3)
	단독주택	29(13.4)		기독교	28(13.7)
생활수준	잘 산다	61(28.2)	모의 종교	천주교	14(6.8)
	중간정도이다	145(67.1)		무교	43(21.1)
	못 산다	10(4.6)		불교	103(50.5)
부모연령평균	아버지	43.9세		기독교	38(18.6)
	어머니	40.9세		천주교	20(9.8)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여가생활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4.2%였고, 여가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반 이상이 한달에 2번 이상 여가생활을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2).

< 표 2 > 가족과의 여가생활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여가생활없음	31(14.2)	여가내용 (중복응답)	운동	71(32.6)
	여가생활있음	187(85.8)		등산	103(47.2)
여가빈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51(27.0)		여행	83(38.1)
	한달에 2번	62(32.8)		영화보기	82(37.6)
	한달에 한번	32(16.9)		낚시	44(20.2)
	방학때마다	31(16.4)		기타	28(12.8)
	일년에 한번	13(6.9)			

2. 주훈육자 및 부모의 교육목적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자신을 주로 훈육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 표 3 >과 같다. 주훈육자는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라고 한 경우가 19.4%, 아버지라고 한 경우가 12.4%였다. 이에 비해 의논상대는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가 42.9%, 어머니가 36.9%, 아버지가 12.9% 순이었다. 즉 주훈육자는 부모 모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중과 의논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신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으나, 좋은 직업(22.7%)이나 좋은 대학 진학(7.4%)이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 표 3 > 주훈육자 및 의논상대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주훈육자	부모	141(65.0)	의논상대	부모	93(42.9)
	아버지	27(12.4)		아버지	28(12.9)
	어머니	42(19.4)		어머니	80(36.9)
	조부모	3(1.4)		조부모	5(2.3)
	기타	4(1.8)		형제자매	11(5.1)

< 표 4 > 부모가 자신을 교육시키는 목적

구 분	빈도(%)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49(22.7)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고	93(43.1)
좋은 대학에 진학하라고	16(7.4)
소질이나 적성을 계발시켜 주기 위해	36(16.7)
기타	22(10.3)

3.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에 대한 인식

1) 가정교육태도에 대한 분석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모범의 정도, 교육의 일관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문항을 통해 부모의 가정교육태도를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3.79점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태도는 대부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문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엄해서 내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에서 아버지는 2.30점 어머니는 2.11점, ‘한 번 안된다고 한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에서 아버지는 3.15점, 어머니는 2.93점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다'에서는 아버지 4.13점 어머니 4.27점으로 아버지의 대화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정교육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목적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인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한다고 한 경우가 3.88점으로 가장 높는데 비해 좋은 대학진학을 위해서인 경우는 3.51점으로 가장 낮아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경우 가정교육에 신경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가정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

가정교육의 내용을 선행연구와 전통 가정교육 내용 등에 기초하여 내용별로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3.80점으로 가정교육 태도점수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자매만 있는 경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수는 적어질수록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훈육자가 아버지이고, 의논상대가 아버지인 경우 가정교육내용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목적이 좋은 대학 진학인 경우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가정교육내용을 세부내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회생활교육이 4.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진로교육 4.25점, 가치관 교육 4.14점, 생활태도교육 4.10점, 학습지원은 3.81점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교육과 조상에 대한 교육은 3.77점과 3.61점으로 다소 낮았으며, 친구관계 교육이나 형제관계 교육도 3.38점, 3.31점에 불과했다. 또 생활자립교육은 3.62점, 소비생활교육은 3.55점, 식사예절은 3.39점, 일상생활예절은 3.29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일상적인 생활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6).

그리고 가정교육태도를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가정교육 내용별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태도에 따라 가치관 교육, 생활태도 교육, 진로교육, 학습지원, 사회생활교육, 조상에 대한 교육, 부모자녀관계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일상적인 예절이나 생활태도와 관련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태도 교육은 전반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 표 5 >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태도와 내용, 가정복지감

		가정교육태도	가정교육내용	가정복지감
성별	남	3.81	3.91	4.50
	여	3.77	3.68	4.39
	F값	.617	14.732***	2.148
형제자매 관계	형제	3.80	3.91	4.41
	자매	3.79	3.62	4.30
	남매	3.78	3.81	4.52
	F값	.617	14.732***	2.148
자녀수	1명	3.88	4.00	4.38
	2명	3.80	3.83	4.47
	3명 이상	3.73	3.60	4.39
	F값	1.056	5.697**	.486
가족형태	핵가족	3.80	3.78	4.50
	확대가족	3.74	3.83	4.18
	F값	.615	.117	9.281**
여가활동 여부	여가활동없음	3.56	3.61	3.98
	여가활동한다	3.83	3.83	4.53
	F값	3.355	1.820	8.841**
주훈육자	부모	3.83	3.82	4.54
	아버지	3.74	3.99	4.50
	어머니	3.69	3.60	4.22
	기타	3.57	3.59	3.73
	F값	2.342	4.689**	9.153***
의논상대	부모	3.84	3.83	4.58
	아버지	3.72	3.97	4.43
	어머니	3.77	3.70	4.40
	기타	3.76	3.81	3.93
	F값	1.003	2.868*	7.493***
교육목적	좋은 직업	3.77	3.79	4.46
	인간다운 사람	3.88	3.89	4.52
	좋은 대학	3.51	3.48	4.23
	소질, 적성계발	3.74	3.67	4.48
	기타	3.74	3.90	4.30
	F값	4.203**	4.377**	1.529

* p<.05, ** p<.01, *** p<.001

< 표 6 > 가정교육 태도에 따른 교육내용별 점수

태도	가치관 교육	생활태도 교육	진로교육	학습지원	사회생활 교육	조상에 대한교육	부모자녀 관계교육
상	4.42	4.31	4.47	4.05	4.62	3.87	4.09
중	4.18	4.13	4.36	3.83	4.42	3.63	3.69
하	3.85	3.90	4.04	3.54	4.21	3.33	3.52
평균	4.14	4.10	4.25	3.81	4.39	3.61	3.77
F값	13.383***	6.766**	6.093**	7.867***	9.049***	8.055***	11.129***

태도	일상예절 교육	친구관계 교육	형제관계 교육	식사예절 교육	생활자립 교육	소비생활 교육
상	3.45	3.43	3.35	3.56	3.73	3.59
중	3.28	3.41	3.28	3.44	3.65	3.58
하	3.19	3.33	3.25	3.30	3.57	3.43
평균	3.29	3.38	3.31	3.39	3.62	3.55
F값	1.820	.407	.900	.925	.909	.425

* p<.05, ** p<.01, *** p<.001

4. 가정복지감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복지감을 부모에 대한 애정, 가족간의 신뢰, 가족간의 화목함 등의 문항을 이용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점수가 4.45점으로 매우 높아, 자신의 가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복지감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핵가족인 경우(4.50점)가 확대가족(4.1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감이 높았으며, 가족과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4.53점)도 하지 않는 경우(3.98점)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주훈육자와 의논상대는 부모모두인 경우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복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교류를 하는 경우에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복지감은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표 5).

5.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에 따른 가정복지감

가정교육태도와 내용을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가정복지감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가정교육내용보다 가정교육태도에 따른 가정복지감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7).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 가정복지감의 상관관계를 Pera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표 8). 이

결과에서도 가정교육내용보다는 가정교육태도가 가정복지감과 더 큰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표 7 > 가정교육태도와 내용에 따른 가정복지감

		가정복지감				가정복지감	
		평균	F값			평균	F값
가정교육태도	상	4.78	44.672***	가정교육내용	상	4.71	16.707***
	중	4.61			중	4.55	
	하	4.07			하	4.25	

* p<.05, ** p<.01, *** p<.001

< 표 8 > 가정교육태도와 내용, 복지감의 상관관계

	가정교육태도	가정교육내용	가정복지감
가정교육태도			
가정교육내용	.416***		
복지감	.596***	.462***	

* p<.05, ** p<.01, *** p<.001

IV. 결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 가정복지감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은 가정교육 태도에 대한 점수가 3.79점, 가정교육 내용은 3.80점, 가정복지감은 4.45점으로 나타나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에 따른 분석에서는 교육목적에 따라 가정교육태도가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교육내용은 성별, 형제자매관계, 자녀수, 주훈육자, 의논상대, 교육목적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가정복지감은 가족형태, 여가활동 여부, 주훈육자, 의논상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주훈육자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 가정교육 내용 점수와 가정복지감이 낮았으며, 가정에서의 의논상대가 아버지인 경우와 부모님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 가정복지감이 유의적으로 높아 가정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 여부는 가정교육 태도와 내용, 가정복지감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모두가 가정교육에 참여하고, 부모와 자녀가 여가활동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정교

육은 보다 효율적이며, 자녀가 지각하는 가정복지감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교육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회생활교육, 진로교육, 가치관 교육, 생활태도교육, 학습지원 등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부모자녀관계교육과 조상에 대한 교육점수는 다소 낮았으며, 친구관계 교육, 형제관계 교육, 생활자립교육, 소비생활교육, 식사예절, 일상생활예절 교육 등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여 일상적인 생활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예절이나 태도교육은 가정교육태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정교육태도와 가정교육내용에 따른 가정복지감을 분석한 결과는 모두 유의적이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가정복지감은 가정교육태도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교육태도가 자녀의 복지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대상이 부산시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지각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